

코오롱, 아라미드 판매금지 “항소”

코오롱은 자회사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법원의 아라미드(Aramid) 판매금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월4일 공시했다.

미국 법원은 8월30일(미국시간) 코오롱에 앞으로 20년 동안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관측, 판매, 유통, 제공 및 권유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화학저널 2012/09/05>